동서간호학연구지 제29권 제2호 2023년 11월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023; 29(2): 117-128
https://doi.org/10.14370/jewnr.2023.29.2.117
ISSN: 1226-4938
eISSN: 2671-8448
www.ewnri.or.kr

[Original Article]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 모형 구축

이은주[1] · 성미혜[2]

[1]서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건강과학연구소, 교수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on Becoming a Mother: From Women Caring for Their First-Born Infants

Lee, Eun Ju[1] · Sung, Mi Hae[2]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young University, Gwangju, Republic of Korea; [2]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Science, Busan,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for predicting motherhood in women with her first infant child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specific nursing interventions to promote successful motherhood.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1 mothers and fathers who had their first child within 12 months and consented to the study. Data collected from June 2, 2022 to January 31, 2023 were analyzed using SPSS 28.0 and AMOS 26.0 program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maternal and paternal factors (postpartum depression and paternal attachment) and infantile factor (temperament) influenced the process of becoming a mother for a women with her first child, with postpartum depression being the most influential factor. **Conclusion:**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motherhood, it is important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and create a nurturing environment for mothers, and social system support and psychological nursing intervention strategies are necessary.

Key Words: Postpartum depression, Role tension, Paternal attachment, temperament, Becoming a mother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첫 자녀의 출산은 여성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지만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첫 자녀를 둔 어머니는 역할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고 어머니의 모성역할수행 및 모성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1]. 이러한 어머니 역할 수행과 적응에의 어려움은 산후우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머니 자신뿐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2].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양육에 따른 역할수행으로 어머니의 긴장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모성역할 긴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3].

남성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준비와 아버지의 역할 수행 및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정보와 지지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4] 아버지의 부성애착 형성은 영아에 대한 열중도(바라보고 안고 만지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에서 시작되며 아버지의 애착 인

주요어: 산후우울, 역할긴장, 부성애착, 기질, 어머니되기
* 본 연구는 제1저자 이은주의 박사학위논문 축약본임.
IRB 승인기관 및 번호: 인제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No: INJE2022-04-025-001, INJE2022-04-025-003, INJE 2022-04-025-006]
Corresponding author: Mi Hae Sung (https://orcid.org/0000-0002-5769-5857)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epartment of Nursing, Inje University, Institute of Helath Science, 75 Bokji-ro, Busanjin-gu, Busan 47392, Republic of Korea
Tel: +82-51-890-6825 Tel: +82-51-896-9840 E-mail: nursmh@inje.ac.kr
Received: 23 September 2023 Revised: 6 October 2023 Accepted: 7 October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식 정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5].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관계는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환경과 낯선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근간이 되고[6]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며 이후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7].

영아의 고유한 특성인 기질은 영아기 초기부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외부 세계와 접촉이 적어 기질의 영향을 더 받는다[8]. 영아의 기질 중 부정기질은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저항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기분이 쉽게 나빠지거나 분노하는 경향이 높다[9]. 또한, 활동기질의 자녀는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더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등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다[10].

어머니되기[11]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립된 정체성에 알맞은 역할을 통합시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표는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모성정체성, 아기와 동일시감 등이다. Mercer[11]는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어머니 요인, 영아 요인, 아버지 요인으로 설명하고 어머니되기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관계, 영아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되기 요인으로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모성정체성, 아기와 동일시감으로 보고자 한다.

어머니되기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질적연구와 이론적 기틀 없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산욕기 초산모의 어머니되기를 예측한 연구[12]와 출산 후 1년 이내 이주여성 어머니를 대상으로 Mercer[11]가 제시한 어머니되기의 주요 개념들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어머니되기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13]뿐으로 어머니되기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Mercer[11]의 어머니되기는 주변의 환경과 문화에 적응해야하는 상황, 출산으로 인해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 습득과 관련된 경험, 모성정체성 형성 등 동시 관계성을 가지고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며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반영한다. 영아는 이 과정에서 능동적 파트너로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영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체계(미시체계) 안에서 성취되며, 어머니되기는 어머니의 경험과 신념 등의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영아, 배우자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4]. 따라서 환경적 요인, 어머니 측 요인, 아버지 측 요인, 영아 측 요인을 변수로 투입하여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와 관련된 요인들 간의 직·간접적 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머니되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술하고 이로 인한 어머니되기의 영향요인을 예상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하여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의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성공적인 어머니되기를 도와주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간호중재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을 적용하여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틀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가설적 모형과 실제 자료 간의 적합도를 검정하여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최종 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최종 모형의 변인들 간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성 유의성을 검증하고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파악하고 이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강도를 확인한다.

3. 연구가설

1) 어머니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출산정책은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출산정책은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배우자지지는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아버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5. 출산정책은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배우자지지는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영아를 내성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산후우울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역할긴장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부성애착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산후우울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역할긴장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부성애착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어머니되기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산후우울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역할긴장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5. 부성애착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6. 영아의 부정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7. 영아의 활동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새로운 역할 습득과 출산으로 전과는 달라진 새로운 상황에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느끼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시기[15]인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론적 기틀과 문헌고찰을 기초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구조모형 연구이다(Figure 1).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아과 외래가 있는 산부인과 병원 6개, 아동 병원 5개, 어린이집 2개, 인구보건복지협회 1개에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이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적합한 표본의 크기로 200개 이상의 대상자를 요구하는 기준[16]과,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선정 기준에 부합한 어머니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를 1쌍으로 240부(어머니, 아버지 각각 240명)를 표집 대상으로 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설문지 응답이 불충분한 39부를 제외하고 211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어머니되기

(1) 예비문항 구성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은 Lederman[17]이 개발하고 Lee[18]가 번안한 것으로 총 14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수행 자신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부모역할 및 영아행동 해석 7문항, 산모의 염려나 의심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17]의 신뢰도는 .82였으며, 번안한 도구[18]의 신뢰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모성정체성

모성정체성은 아기 어머니로서의 자기 정체감 도구(My self as Mother)를 Walker[19]가 개발하고 Koh[20]가 번안한 것으로 총 11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19]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번안한 도구[20]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7이었다.

(3) 아기와 동일시감

아기와 동일시감은 아기와의 동일시감(SD My Baby) 측정도구를 Walker[19]가 개발하고 Koh[20]가 번안한 것으로 총 6문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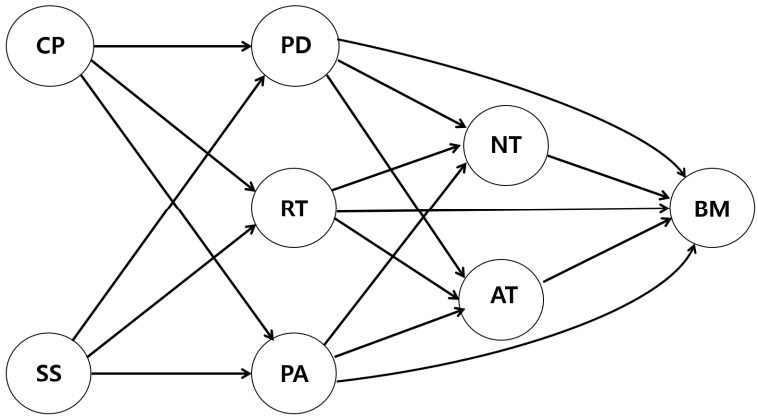

Figure 1. Path diagram of the hypothetical mode

CP: Maternity policy, SS: Spousal support, PD: Postpartum depression, RT: Role tension, PA: Paternal attachment, NT: Negative temperament, AT: Activity temperament, BM: Becoming a mother.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19]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번안한 도구[20]의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6이었다.

2) 어머니요인

(1) 산후우울

산후우울은 한국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측정도구(Edinburgh Postpartum Depression Scale, EPDS-K)[21]로 총 10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판 도구[21]의 신뢰도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역할긴장

역할긴장은 Hobbs[22]와 Steffensmeier[23]가 개발한 도구를 Koh [20]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8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에 대한 긴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22,23]의 신뢰도는 .83이었으며, 수정, 보완한 도구[20]의 신뢰도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3) 아버지요인

(1) 부성애착

부성애착은 Greenberg와 Morris[24]가 개발한 도구를 Kim[25]이 번안한 도구로 총 35문항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성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시각적 인식 5문항, 촉각적 인식 5문항, 아기의 특성구분 5문항, 완전한 개체로 인식 5문항, 강한관심과 애정 5문항, 심리적 고양감 5문항, 역할인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도구[24]의 신뢰도는 .89였으며 번안한 도구[25]의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9였다.

4) 영아요인

(1) 기질

기질은 기질척도(Infant Behavior Questionnaire: IBQ)를 Rothbart [26]가 개발하고 Wui[27]가 번안한 도구로 총 38문항으로 도구의 하위영역은 긍정적 기질 9문항, 주의 지속적 기질 6문항, 접근 기질 5문항, 부정 기질 9문항, 주의전환 기질 5문항, 활동기질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되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부정기질과 활동기질만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기질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26]의 신뢰도는 .70~.90이었으며 한국판 번안한 도구[27] 신뢰도는 긍정적 기질이 .77, 주의 지속적 기질 .79, 접근 기질 .78, 부정 기질 .67, 주의전환기질 .65, 활동기질 .6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기질 .84, 주의 지속적 기질.88, 접근 기질 .87, 부정 기질 .65, 주의전환기질 .76, 활동기질 .66이었다.

5) 출산정책

출산정책은 Kwon[28]이 개발한 출산장려정책 도구를 2022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총 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출산정책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현금지원 4문항, 세제지원 3문항, 시간지원 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제지원은 요인적재량이 .98로 제외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28]의 신뢰도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6) 배우자지지

배우자지지는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지지 도구를 Lee[29]가 개발하고 Cha[13]가 수정한 도구로 총 2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체적지지 12문항, 정서적지지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발 당시 도구[29]의 신뢰도는 .80, 수정한 도구[13]의 신뢰도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4. 자료수집

연구자가 소속된 기간의 인제대학교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NJE2022-04-025-001, INJE2022-04-025-003, INJE 2022-04-025-006) 후 본 연구는 2022년 6월 2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외래에서 직접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작성 방법을 안내한 후 선정 기준에 적합하며 자발적 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어머니, 아버지)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과 AMOS 26.0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와 같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로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3.0을 초과하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이면 심각한 비정규성의 기준이 되며[30]. 본 연구에서 왜도의 절대값은 -1.30~0.64로 2.0 이하였고, 첨도의 절대값은 -0.46~3.03으로 7보다 작아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모형의 타당성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구조 모형 검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은 표준화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 SC),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 임계비(Critical Ratio, C.R), p값으로 확인하고 내생변수의 설명력은 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로 평가하였다.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3.30±3.83세로, 30~34세가 53.6%(113명)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평균 결혼연령은 30.51±3.64로 29세 이하가 47.4%(100명)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59.7%(126명)였으며, 직업 형태는 관리직/전문직 47.6%(60명), 사무직 29.4%(37명), 서비스/판매직 17.5%(22명), 기타 5.6%(7명)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학사가 51.2%(108명)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어머니는 68.2%(144명)로 나타났다. 어머니 건강상태는 '건강하다'가 43.6%(92명)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57.8%(122명)로, 계획임신을 한 어머니는 68.2%(144명)로 나타났다. 평일 자녀와 보내는 평균 시간은 14.55±9.67시간이었으며 18~24시간이 51.7%(106명)로 가장 많았으며 주말 자녀와 보내는 평균 시간은 17.05±7.40시간으로, 18~24시간이 53.2%(109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N=211)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Mother	Mother age (yr)	≤29	28 (13.3)	33.30±3.83
		30~34	113 (53.6)	
		35~39	57 (27.0)	
		≥40	13 (6.1)	
	Age of marriage (yr)	≤29	100 (47.4)	30.51±3.64
		30~34	83 (39.3)	
		≥35	28 (13.3)	
	Job	Yes	126 (59.7)	
		No	85 (40.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19 (9.0)	
		Associate degree	50 (23.7)	
		Bachelor	108 (51.2)	
		≥Master	34 (16.1)	
	Religion	Yes	67 (31.8)	
		No	144 (68.2)	
	Health conditions	Very healthy	37 (17.5)	
		Healthy	92 (43.6)	
		Below average	82 (38.9)	
	Marital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47 (22.3)	
		satisfaction	122 (57.8)	
		Below average	42 (19.9)	
	Planned pregnancy	Yes	144 (68.2)	
		No	67 (31.8)	
Father	Father age (yr)	≤29	9 (4.3)	35.63±4.47
		30~34	88 (41.7)	
		35~39	82 (38.8)	
		≥40	32 (15.2)	
	Marriage age (yr)	≤29	37 (17.5)	32.82±4.27
		30~34	121 (57.3)	
		≥35	53 (25.2)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Infants	Gender	Female	112 (53.1)	
		Male	99 (46.9)	
	Infant months	4～5	50 (23.7)	7.90±2.79
		6～7	54 (25.6)	
		8～9	36 (17.1)	
		10～12	71 (33.6)	
	Type of delivery	Cesarean section	84 (39.8)	
		Vaginal delivery	127 (60.2)	
	Feeding method	Breastfeeding	33 (15.6)	
		Powdered	87 (41.2)	
		Mixed feeding	91 (43.2)	

SD=Standard deviation

1.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다중공선성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출산정책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13±.79점이었으며 배우자지지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01±.59점이었다. 부성애착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56±.34점이었으며 산후우울은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0.86±.60점이었으며, 역할긴장은 총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48±.48점이었다. 영아의 부정기질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2.72±.56점, 영아의 활동기질은 2.38±.79점이었다. 어머니되기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60±.33점으로, 하위 항목별 점수는 역할수행 자신감이 3.14±.43점, 어머니정체성이 3.46±.32점, 아기동일시가 4.21±.48점이었다(Table 2). 본 연구에서 왜도의 절대값이 3.0을 초과하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 이상이면 심각한 비정규성의 기준이 된다[30]. 본 연구에서 왜도는 -1.30~0.64로 절대값이 2.0 이하였고, 첨도는 −0.46~3.03으로 절대값이 7보다 작아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차한계 값은 .34~.71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40~2.96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2. 모형의 타당성 검증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내며 요인부하량(표준화 계수 0.5 이상)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지수 0.5 이상,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CR) 0.7 이상인지 확인하였다. 집중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잠재변인들의 모든 하위항목들의 표준화 계수는 .60 이상 높았으며, 개념신뢰도 .70 이상, 분산추출지수는 .50 이상으로 나타나 잠재변인들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의 AVE 지수와 다중 상관계수(r)를 비교한 결과, 잠재변수 AVE값은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정책, 배우자지지, 부성애착, 어머니되기의 개념이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법칙타당도는 배우자지지와 출산정책, 부성애착과 배우자지지, 어머니되기와 출산정책, 어머니되기와 배우자지지, 어머니되기와 부성애착의 관계가 양(+)의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내생변수인 어머니되기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를 보면 출산정책(r=.16 p=.024), 배우자지지(r=.24, p<.001), 부성애착(r=33, p<.001)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3. 연구변수의 다중공선성 분석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변수 간에 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구하였다. 공차한계가 0.1 이하, VIF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30]. 본 연구에서 공차한계 값은 .34~.71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는 1.40~2.96로 10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설모형의 검증

가설 모형은 χ^2/df는 2.0~3.0 미만, AGFI .85 이상, GFI, NFI, TLI, CFI .90 이상, RMR .05~.08로 값이 낮을수록 모형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며, SRMR .05~.08, RMSEA .08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31]. 본 연구에서 χ^2/df=1.69, GFI=.92, AGFI=.89, NFI=.89, TLI=.94, CFI=.95, RMR=.02, SRMR=.06, RMSEA=.07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적합지수를 보았을 때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대한 가설적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collinearity of the Research Variables (N=211)

Variables		Mean±SD	Range	Skew	Kurt
Child birth policy	Cash	4.29±.72	1-5	-1.30	3.03
	Time	3.96±1.10	1-5	-1.01	0.41
	Total	4.13±.79	1-5	-0.72	0.00
Spousal support	Physical Support	3.85±.66	1-5	-0.45	0.32
	Emotional support	4.16±.59	1-5	-1.13	1.77
	Total	4.01±.59	1-5	-0.70	0.60
Paternal attachment	Visual	3.71±.37	1-4	-1.19	0.49
	Tactile	3.53±.44	1-4	-0.83	0.80
	Baby characteristics	3.41±.39	1-4	-0.51	-0.05
	Complete objects	3.53±.43	1-4	-0.86	1.92
	Strong attention	3.48±.50	1-4	-0.81	0.21
	Psychological uplifting	3.51±.45	1-4	-0.71	1.11
	Role recognition	3.73±.40	1-4	-1.11	0.92
	Total	3.56.34	1-4	-0.92	1.67
Postpartum depression		0.86±.60	0-3	0.55	-0.544
Role tension		2.48±.48	1-4	-.024	-0.36
Negative temperament		2.72±.56	1-5	0.30	-0.46
Activity temperament		2.38±.79	1-5	0.43	-0.06
Becoming a mother	Maternal role confidence	3.14±.43	1-5	-0.22	-0.42
	Self identity	3.46±.32	1-5	0.16	-0.04
	Identification with the baby	4.21±.48	1-5	-0.67	0.85
	Total	3.60±.33	1-5	-0.33	-0.14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and AVE (N=211)

Variable	Correlation Coefficient r (*p*)				AVE
	Child birth policy	Spouse support	Paternal attachment	Becoming a mother	
Child birth policy	1				.54
Spouse support	.26 (<.001)	1			.72
Paternal attachment	.18 (.009)	.32 (<.001)	1		.89
Becoming a mother	.16 (.024)	.24 (<.001))	.33 (<.001)	1	.84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5. 가설모형의 모수 추정

본 연구의 모형의 모수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7개의 경로 중 12개의 경로가 유의하였다(Figure 2, Table 4). 배우자지지(β=.36, *p*=.001)는 부성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성애착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은 16%였다. 출산정책(β=.41, *p*=.004), 배우자지지(β=-.89, *p*<.001)는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우울에 대한 출산정책과 배우자지지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은 51%였으며 그 중 배우자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출산정책(β=.59, *p*<.001)과 배우자지지(β=-.93, *p*<.001)는 역할긴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할긴장에 대한 출산정책과 배우자지지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은 54%였으며 그 중 배우자지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성애착(β=-.15, *p*=.03) 역할긴장(β=.38, *p*<.001)은 부정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기질에 대한 부성애착과 역할긴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는 17%였으며 그중 역할긴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역할긴장(β=.32, *p*<.001)은 활동기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기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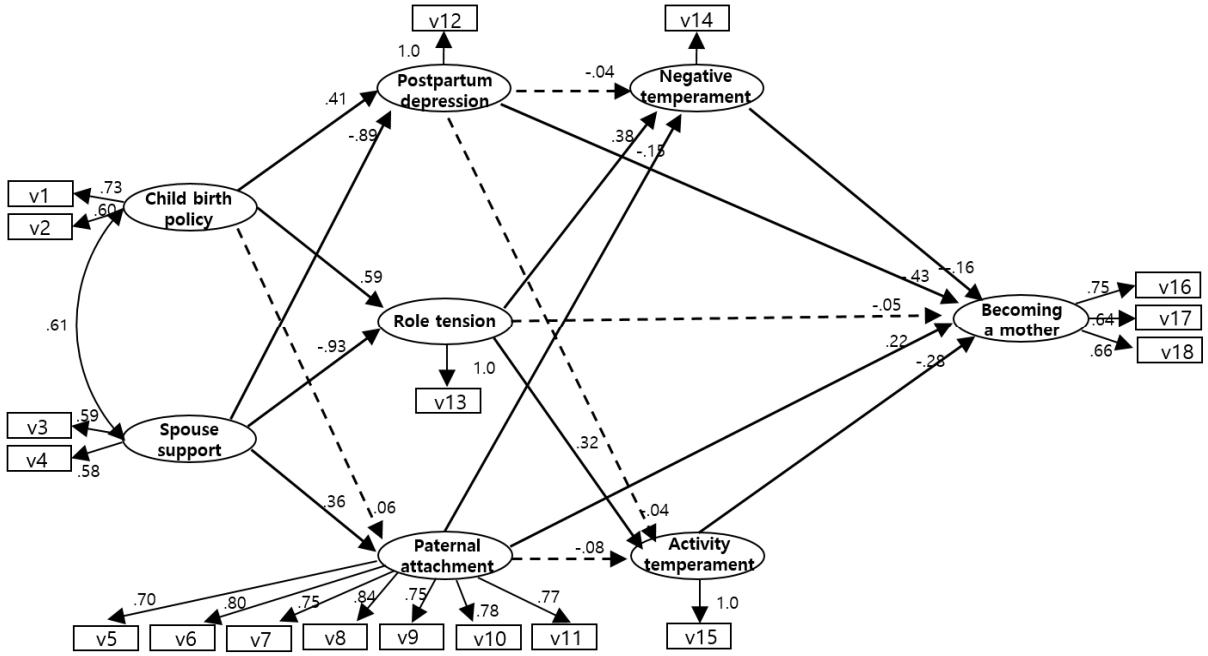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modified model.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the Hypothetical Model (N=211)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SC	CR(P)	β(p)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ternal attachment	← Child birth policy	.06	.50(.614)	.06(.738)	-	.06(.738)
	← Spouse support	.36	3.18(.001)	.36(.014)	-	.36(.014)
Postpartum depression	← Child birth policy	.41	2.88(.004)	.41(.074)	-	.41(.074)
	← Spouse support	-.89	-5.96(<.001)	-.89(.010)	-	-.89(.010)
Role tension	← Child birth policy	.59	3.57((<.001)	.59(.053)	-	.59(.053)
	← Spouse support	-.93	-5.68(<.001)	-.93(.010)	-	-.93(.010)
Negative temperament	← Paternal attachment	-.15	-2.13(.030)	-.15(.063)	-	-.15(.063)
	← Postpartum depression	-.04	-.51(.610)	-.04(.618)	-	-.04(.618)
	← Role tension	.38	5.14(<.001)	.38(.010)	-	.38(.010)
Activity temperament	← Paternal attachment	-.08	-1.15(.252)	-.08(.352)	-	-.08(.352)
	← Postpartum depression	-.04	-.46(.648)	-.04(.838)	-	-.04(.838)
	← Role tension	.32	4.25(<.001)	.32(.010)	-	.32(.010)
Becoming a mother	← Paternal attachment	.22	2.99(.003)	.22(.019)	.05(.210)	.27(.014)
	← Postpartum depression	-.43	-5.19(<.001)	-.43(.010)	.01(754)	-.42(.010)
	← Role tension	-.05	-.56(.573)	-.05(.641)	-.15(.010)	-.19(.054)
	← Negative temperament	-.16	-2.18(.029)	-.16(.08)	-	-.16(.08)
	← Activity temperament	-.28	-3.92(<.001)	-.28(.010)	-	-.28(.010)

SC: Standardized coefficient, CR: Critical ratio, 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대한 역할긴장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는 11%였다. 부성애착(β=.22, *p*=.003) 산후우울(β=-.43, *p*<.001), 부정기질(β=-.16, *p*=.029), 활동기질(β=-.28, *p*<.001))은 어머니되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되기에 대한 부성애착, 산후우울, 부정기질, 활동기질의 설명력인 다중상관제곱(SMC)는 53%였으며 그 중 산후우울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Figure 2, Table 4).

6. 가설모형의 효과분석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산후우울(β=-.43, p=.010)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활동기질(β=-.28, p=.010), 부성애착(β=.22, p=.0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되기에 간접효과는 역할긴장(β=-.15, p=.01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배우자지지(β=.36, p=.014)로 나타났으며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배우자지지(β=-.89, p=.010)로,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배우자지지(β=-.93, p=.010),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역할긴장(β=.38, p=.010),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역할긴장(β=.32, p=.01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7. 가설 검증

다중집단분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총 17개의 가설 중에서 5개의 가설은 기각되었고, 총 12개의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채택되었다.

1) 어머니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 '출산정책은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2.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3. '출산정책은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4. '배우자지지는 역할긴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2) 아버지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5. '출산정책은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 6. '배우자지지는 부성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3) 영아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7. '산후우울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 8. '역할긴장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9. '부성애착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10. '산후우울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 11. '역할긴장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12. '부성애착은 영아의 활동기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4) 어머니되기를 내생변수로 하는 가설

가설 13. '산후우울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14. '역할긴장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가설 15. '부성애착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가설 16. '영아의 부정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 되었다.

가설 17. '영아의 활동기질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의 모형을 구축하여 검증하기 위해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 요인(산후우울, 역할긴장), 아버지 요인(부성애착), 영아 요인(부정기질, 활동기질), 환경(출산정책, 배우자지지)과 어머니되기 간의 인과관계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명 모형에서 어머니되기에 부성애착과 산후우울, 활동기질은 직접효과가 있었고, 역할긴장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어머니되기를 53%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후 4개월 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6]에서 일상생활의 시간적 여유, 사회적지지에 의한 어머니되기 설명력이 59.6%로 나타난 결과와 이주여성 어머니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연구[13]에서 어머니의 연령과 산후우울정도, 문화적응정도에 의한 어머니되기 설명력이 33.8%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들의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선행된 연구들은 어머니되기와 관련하여 이론적 모델 기반이 없이 분석하거나 이론적 모델의 일부만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과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되기 영향요인과 이들의 설명력

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에 활용된 잠재변수와 활용된 측정 도구의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 사료되어 향후 본 연구의 분석틀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에 대한 일반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 점수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44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로 어머니되기를 측정한 선행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나 어머니되기 측정변수인 모성역할수행 자신감과 모성정체성, 아기와의 동일시감의 평균평점으로 보았을 때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사료된다. 어머니되기의 지표인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97점이었는데,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산욕기 어머니의 역할수행자신감을 측정한 연구[32]에서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80점인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결혼만족도에 따라 이들의 어머니되기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혼생활만족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신뢰와 친밀감을 기반으로 모성역할수행 자신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모성정체성은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3.31점이었는데, 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한 미숙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33]에서 평균평점이 3.32점(총점 평균 51.15점을 평균평점으로 환산한 점수)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기와 동일시감 점수는 총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04점이었는데 이는 초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평균평점이 3.48점(총점 평균 29.38점을 평균평점으로 환산한 점수)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녀의 75% 이상이 6개월에서 12개월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는 아기를 지각하고 관찰하면서 역할을 받아들이고 아기의 활발한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돌보는 일에 자신감이 형성될 수 있는 안정이 된 시기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보다 객관화시키기 위해 추후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아기와의 동일시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결과를 어머니 요인, 영아 요인, 아버지 요인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 요인에서 산후우울은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은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35]이나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 어머니되기와 산후우울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산욕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36]에서 산후우울과 어머니 역할수행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산후우울이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산후우울이 높을수록 모성정체성이 낮고 영아 돌보기가 낮게 나타나므로[20]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성정체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산후우울이 나타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산후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간호계획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을 통해 어머니되기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되기에 배우자지지가 높을수록 산후우울이 낮아 어머니되기 정도가 높아졌다. 선행연구[37]에서 배우자지지는 산후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 배우자지지가 어머니되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확인되었으므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산후우울을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우지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산정책은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인 어머니는 주양육자로 평균연령이 33세이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자녀 양육으로 보내게 되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현금지원(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과 시간지원(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출산정책에 대해 인지할수록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과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들의 산후우울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후우울이 나타날 가능성을 인지하고 영향을 주는 배우자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며 출산정책 지급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영아 요인에서 영아의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은 어머니되기에 부적상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연구[38]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영아기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어머니역할수행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아는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영아의 기질에 일관성이 있으며 민감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머니되기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역할긴장은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을 매개하여 어머니되기로 가는 경로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역할긴장이 영아의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을 통해 어머니되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39]에서 산

후 6주 이내에 측정한 아기의 기질이 어머니의 역할 긴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모아 상호작용을 잘할수록 아기의 기질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영아의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요소이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효율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영아의 기질을 빠르게 파악하여 영아의 기질에 적절한 양육행동과 어머니가 역할 수행을 하는데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영아의 기질을 지각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아버지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성애착으로 나타났다. 환경요인인 배우자지지는 부성애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부성애착이 높아 어머니되기 정도가 높아졌다. 선행연구에서 아버지의 부성애착은 배우자의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 본 연구에서 부성애착은 영아의 부정기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와 관계에서 아버지의 원 가족에서의 부성애착이 중요하며 부성애착은 어머니의 모성애착과 마찬가지로 영아와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은 환경 안에 어머니, 아버지, 영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어머니되기가 되어감을 주장하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Mercer[11]의 어머니되기 모델의 주요 개념인 환경 요인, 어머니 요인, 아버지 요인, 영아 요인 등 전체적인 요인을 투입하여 어머니되기와 관련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위한 간호중재에 필요한 설명 모형을 제시하였고, 본 모형을 바탕으로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에 도움이 될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반면, 본 연구결과는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도출된 것으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성애착과 영아의 부정기질 간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어머니되기에 다각도로 초점을 두어 이들의 어머니되기 관련 요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영아, 환경을 투입하여 그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머니되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성애착을 강화하고 산후우울, 영아의 부정기질과 활동기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간호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여성의 어머니되기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이론적 기틀로서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ORCID

Lee, Eun Ju https://orcid.org/0009-0002-7055-567X

Sung, Mi Hae https://orcid.org/0000-0002-5769-5857

REFERENCES

1. Hwang JA, Kim SJ, Kim KS. The meaning of motherhood to mothers with their infant and toddler. Korea Open Associ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6;21(1):297-318.
2. Chae YS. Adaptation of maternal roles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primiparas during early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5;8:113-24.
3. Park JM, Kim EJ.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maternal role strain in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4;34(2):235-42.
4. Lim JA.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her class upon father's level of knowledge and confidence about postpartal woman and newborn car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2:8(3):345-57.
5. Kim JY. The degree of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5;25(2):330-40.
6. Ainsworth MD. The development of infant mother attachment. In: Caldwell BM, Ricciuti HN, editor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3.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3.
7. Styron T, Janoff-Bulman R. Childhood attachment and abuse: Long-term effects on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d conflict resolution. Child Abuse & Neglect. 1997;21(10):1015-23. https://doi.org/10.1016/S0145-2134(97)00062-8
8. Lee EY, Kim SY. Effects of sensory action using five sense picture book on the sense ability and language development for infant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0;29(1):201-19. https://doi.org/10.17643/KJCE.2020.29.1.10
9. Kim US, Kwak KJ. Effect of developmental change of infant's temperament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behavio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6;29(3):95-111.
10. Ryu CS, Choi SN, Choi YK. The effects of mother's attitude by infants' temperament and infants development and mother's self-esteem. Korean Association for Children's Media & Education. 2013;12(3):177-96.
11. Mercer RT. Nursing support of the process of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2006;35(5):649-51.
12. Lee ES. Maternal role attainment of primiparous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Nursing, 1992;2(1): 5-20.
13. Cha HS. Factors influencing becoming a mother for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9. 165 p.
14. Park YS, Kang HS, Kim JH, Ahn SH, Lee KS. Nursing theorists and

their work. Seoul: Daehak Seorim Press; 2008. 862 p.
15. Cowan CP, Cowan PA. Interventions to ease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Why they are needed and what they can do. Family Relations. 1995; 44(4):412-23. https://doi.org/10.2307/584997
16. Woo JP.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Seoul: Hannarae; 2017. 650 p.
17. Lederman RP, Weigarten CG, Lederman E. Postpartum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Measures of maternal adaptation. Birth Defects Original Article Series. 1981;17(6):201-31.
18. Lee YE.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an agreement on the means to achieve nursing goals in the early postpartum period of primiparous mothers and enhance their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maternal role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2;22(1):81-115.
19. Walker LO. Investigating the semantic properties of two concepts [unpublished dissertation]. Austin: University of Texas; 1977.
20. Koh HJ. The change and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ole strain and husband's support in first-time mothers with regard to their employment statu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1):5-35.
21. Kim JI. A Validation study on the translated Korean version of the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06;12(3):204-9.
22. Hobbs DF. Transition to parenthood: A replication and an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 Family. 1968;30(3):413-7.
23. Steffensmeier RH. A role model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1982;44(2):319-34. https://doi.org/10.2307/351542
24. Greenberg M, Morris N. Engrossment: The newborn's impact upon the father.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974;44(4):520-31. https://doi.org/10.1111/j.1939-0025.1974.tb00906.x
25. Kim JY. The degree of paternal attachment to neonate. Journal of Korean. Acdemy of Nursing. 1995;25(2):330-40. https://doi.org/10.4040/jnas.1995.25.2.330
26. Rothbart MK, Mauro JA. Questionnaire measures of infant temperament. In: Fagen JW, Colombo J, editor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cy: Stability and prediction. Hillsdale (NJ): Erlbaum; 1981. pp. 411-28.
27. Wui YH.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IBQ scal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994;15(1):109-25.
28. Kwon HY. A study on the women's understanding of childbirth policies affecting their childbirth intension [master's thesis]. Kongju: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20. 90 p.
29. Lee HJ. Understanding maternal role attainment in taejon, Korea through the use of a structural mode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2):162-72.
30. West SG, Finch JF, Curran PJ.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Hoyle R, edit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1995. pp. 56-75.
31. Kim GS. AMOS 18.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eoul: Hannarae; 2013. 663 p.
32. Hwang HJ. A study on father's attachment to infant and related variables. Korea Journal of Child Care & Education. 2012;12(1):81-99.
33. Shim HJ, Choi HK.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social support, maternal identity on maternal postpartum quality of life among women in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2022;26(1): 1-14.
34. Kim HW, Hwang MS, Hong KJ. Primipara's maternal identity & self confidence for caring the baby during the immedi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998;4(1):84-102.
35. Cho HW, Woo JY. The relational structure modeling between variables related with postpartum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2013;25(3):549-73.
36. Oh JE.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identity, role attain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 Child Health. 2001;5(2):255-66.
37. Cho HJ, Choi KY, Lee JJ, Lee IS, Park MI, Na JY, et al. A study of predicting postpartum depression and the recovery factor from prepartum depression. Perinatology. 2004;15(3):245-54.
38. Kang YH, Park HS, Hwang EJ, Mun MY. Relationship of maternal perception of the infant temperament and confidence and satisfaction of maternal ro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2003;9(2):206-20.
39. Bai JY. Construction of a postpartum depression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 Mental Health Nursing. 2002;11(4):572-87.
40. Kim SI, Lee HC. A study on the claim potential on public construction works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04;41:53-8.